

LG화학, 中 NBL 공장 가동… 글로벌 3각 생산체제 완성

(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

시장 상황 따라 추가 투자 검토
연간 100만톤 생산능력 확보 계획
“글로벌 시장서 확실한 우위 선점”

LG화학이 위생의식 강화로 급성장하는 NBL(니트릴부타디엔라텍스)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미래 준비에 나선다.

LG화학은 중국 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으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NBL 글로벌 3각 생산체제 완성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양대 핵심 시장인 중국과 말련 내 현지 생산거점을 보유한 유일한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한다.

NBL은 부타디엔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고무 소재로 니트릴 장갑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니트릴 장갑은 강도 및 내화학성이 뛰어난 라텍스 장갑으로 기존의 천연고무 장갑을 대체하며 의료 용, 산업용, 요리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먼저 LG화학은 현재 17만톤 규모의



LG화학 NBL.

여수공장 NBL 생산능력을 연간 28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11만 톤 증설 공사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내 본격적인 상업가동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 NBL 생산능력도 연간 21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낭보시에 위치한 LG화학 용상법인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NBL 공장을 신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니트릴 장갑 시장 수요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까

지 추가 11만 톤 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LG화학이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화학기업인 페트로나스 케미칼 그룹(PCG)과 설립한 NBL 합작법인은 말레이시아 남부 펜자랑 지역에 연간 24만 톤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이 51%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이 합작법인은 2023년 상반기 내 양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니트릴 장갑 생산

(韓-中-말레이시아)

의 70% 이상을 차지해 LG화학은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통해 고객과의 협업 및 제품 공급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니트릴 장갑은 코로나 감염 차단을 위한 의료 용도로 사용이 급증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강화된 위생 의식으로 필수적인 위생용품 소재로 인식돼 지속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고무장갑제조연합회(MARGMA)에 따르면 니트릴 장갑의 수요는 연평균 19% 이상 고성장을 이어가, 2024년 4,109억장 규모로 약 12조 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니트릴 장갑의 원료인 NBL 수요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외 추가적인 증설 투자를 검토해 연간 100만 톤 이상의 NBL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LG화학은 2007년 독자 기술로 NBL 개발에 성공, 이듬해 여수공장에서 본

격적인 제품 양산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NBL 제품군을 기반으로 국내외 신시장을 발굴하고 물성, 품질, 착용감 등을 개선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NBL은 실리콘 파우치보다 탄성이 높고 산소차단율도 5배 이상 좋아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화장품 내용물의 변질을 막는데도 유리하다.

LG화학 노국래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주요 거점별 생산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시장을 발굴해 위생용품 분야의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은 NBL 시장을 적극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NBL 생산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연구시설·사옥 등 친환경 건물 투자 확대

사이언스파크 연구동 G-SEED 우수
美 신사옥, 리드 플래티넘 등급 획득

LG전자가 건물로도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나섰다.

LG전자는 서울 LG사이언스파크에 짓고 있는 LG전자 연구동 1단계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주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물은 2017년 1단계 6개동을 완공 한 상태다. 현재 4개 동을 추가로 올리는 2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는 예비인증으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미국 뉴저지주에 지은 북미법인 신사옥으로도 미국 그린빌딩위원회 제정 친환경 인증제도 ‘리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하기도 했다. 설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에너지 효율과 물 사용량 등 환



LG전자 북미 신사옥.

/LG전자

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4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LG전자가 3억 달러를 투자한 신사옥은 대지면적 약 11만m²에 연면적 6만 3000m² 규모다. 이 건물 주변의 삼림, 습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연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녹지를 조성했는데 신사옥 주변에 심은 나무만 1500그루가 넘는다. 건물 옥상에 설치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은 전기를 만드는 동시에 탄소배출

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건물 전체에 적용한 고효율 공조시스템(HVAC)은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

아울러 LG전자는 사업장뿐 아니라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건축물을 통해 고객에게 미래의 집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에 연면적 약 500m² 규모에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조성한 ‘LG 씽큐 홈’은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

축물 본인증 1등급을 받았다. 이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한 제도이며 1등급이 가장 높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관할하는 이베리아법인은 지난 2019년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인 인근에 스마트 그린 홈 쇼룸과 스마트 그린 가든을 구축했다. 스마트 그린 홈에 있는 태양광 모듈, 친환경 보일러,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등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탄소배출을 줄인다.

이같은 노력은 ‘탄소 중립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50%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LG이노텍

지난해 온실가스 4.5만톤 ↓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G이노텍이 지난해에도 나무 390만 그루가 흡수할 만큼의 탄소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LG이노텍은 2020-21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LG이노텍이 지난해 절감한 탄소 배출량은 약 4만5000tC 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2019년보다 11%를 줄인 수치다.

특히 LG이노텍은 이 기간 매출액을 20% 높이면서 의미를 더했다. 제조업이 매출을 늘리면 온실가스를 더 배출 할 수밖에 없지만, LG이노텍은 오히려 더 감축하는데 성공한 것.

아울러 LG이노텍은 새로운 비전과 조직을 통한 ESG 경영 강화 의지도 보고서에 담았다.

/김재웅 기자

LG전자

올인원타워, ‘잇템’ 자리매김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거치대 올인원타워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LG전자는 12일 LG 코드제로 무선청소기 구입 소비자 가운데 올인원타워 거치대를 함께 구매하는 비중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6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올인원타워는 먼지통 비움·청소기 충전·액세서리 보관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거치대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5월부터 LG 코드제로 A9, A9S 씽큐 등 기존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인원타워를 단품으로 판매했다. 올인원타워 단품 판매량은 출시 약 3주 만에 1만대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대 수습기자 cd1@

SK, 15일부터 한달간 이천 서브포럼 진행

이천포럼 사전강연·토론 세션 진행
지속가능 생태계 딥 체인지 실천 논의

SK그룹이 이천포럼에 불을 지핀다.
SK그룹은 15일부터 이천 서브 포럼을 1달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천 서브포럼은 이천 포럼의 사전 강연 및 토론 세션이다. 다음달 23일 개최되는 이천포럼 2021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SK의 딥 체인지 실천’을 주제로 열린다.

SK는 포럼에서 글로벌 경영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파이낸셜

스토리 등 의제 토론 등을 통해 딥 체인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천포럼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 형식을 결합해 열린다.

서브포럼 역시 각계 전문가들의 스튜디오 패널토론과 이를 줌(Zoom), 클럽 하우스(Club House) 등 소셜미디어로 연계한 영상·오피오 토론 방식으로 SK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된다.

/김재웅 기자

삼성전자, ‘삼성보안기술포럼’ 참가 접수

삼성전자가 올해에도 정보보안 기술 부문 전문가들을 한데 모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제5회 삼성보안기술포럼(SSTF)’ 주요 일정을 공개하고 12일부터 온라인 참가 접수를 시작했다.

SSTF는 정보 보안 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해 열리는 행사다. 세계적인 보안 전문가들과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보안 기술 분야 최신 성과를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삼성리서치 글로벌 기술 행사를 ‘삼성 테크 포럼’으로 통합

해 보안 기술과 오픈소스,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연내 순차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향해(Toward a Safe & Reliable Experience)’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기조 강연, 삼성리서치의 보안 분야 주요 연구 활동을 공유하는 기술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재웅 기자

